

고물가 반영 안된 소득 기준탓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감소

광주·전남 1년새 9000가구 줄어...지역 신청자 6만여명 탈락
물가 반영한 실질소득 아닌 명목소득 기반...“제도 확대 시급”

벌이는 나아지지 않는데,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소득·재산 기준 탓에 광주·전남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1년 새 9000가구 감소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속 연도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광주 13만 5000가구·전남 19만6000가구 등 33만1000가구로, 전년(34만가구)보다 9000가구(2.6%) 감소했다.

1년 새 광주에서 5000가구 감소했고, 전남에서는 4000가구 줄었다. 광주·전남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21년 34만5000가구, 2022년 34만가구, 2023년 33만1000가구, 지난해(귀속 기한 후 6~11월 미 포함) 32만2000가구 등으로 줄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지역민 가운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매년 6만~7만건 넘게 발생

하고 있다. 2023년에는 광주·전남에서 39만1000명이 신청한 가운데 6만명이 탈락했고, 지난해에도 6만1000명이 선정되지 못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저소득자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3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의 7.5~8.9% 수준으로, 취약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돈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득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명목임금이 올라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광주지역 가구당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해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 요건도 근로장려금 문턱을 높였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채는 감액되지 않고 재산으로 합산된다.

광주지역 가구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나게 되면서 ‘집 한 채 있는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이 근로장려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등 7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뉴스

특검, 尹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

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배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공사를 파ئت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에 대해 '보주기' 감사를 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전남 기업 11개사, ‘CES 혁신상’ 5개 부문 수상

광주·전남 기업이 세계 최대 전자·IC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CES 혁신상에서 지역 혁신기업 7곳이 최고혁신상 1건, 혁신상 6건을 받아 작년(5곳)보다 수상 기업이 2곳 늘었다. 전남에서도 4개 기업이 5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시상하는 CES 혁신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로 통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여행·관광’ 최고혁신상을 받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컬 투어링 솔루션을 비롯해 프

라이버시 보존 결제, 투명교정 AI 진단·치료계획, 자율주행차 탑승자 응급 모니터링, 여성 안전 플랫폼, AI 3D 인테리어 설계, 디지털 후각 등 지역 기업의 다수 솔루션이 혁신상 라인업에 올랐다.

광주시는 이번 수상을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동반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로 해석한다.

특히 ‘여행·관광’ 분야 평가는 도시 이동 안전·보행자 중심 설계·관광·생활 동선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방증으로, 수상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CES 2026을 겨냥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참가기업 모집(17개사 선정)을 마쳤고, 혁

신상 신청 자료, 글로벌 마케팅, 비즈 매칭, 해외진출 역량교육 등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운영 중이다.

전년도 실적(1개 기업, 2개 분야)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에서는 ㈜아이아이에스티(AI 기반 재난감지 시스템), ㈜뉴작(XR 공간 컴퓨팅 기술), ㈜고려오토론(극미량 암세포 실시간 정밀 분석), ㈜터빈크루(농장 자동 모니터링) 등 4개 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CES 2026 기간 수상 기업을 포함한 지역 12개 기업과 함께 ‘전남관’을 운영, 글로벌 벤처캐피탈 초청 기업설명회, 해외 바이어 상담회, 현지 홍보 연계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분 할 공 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 재출 공고)

주식회사 대영건설(분할종속회사)은 2025년 11월 06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영업의 일부인 토목공사사업과 인력관리사업과 도급수입·방수·배수 공사사업의 전할을 사업분배에 관한 일체의 자산, 권리 및 의무를 물적분할하여 (가)종 주식회사 대영건설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당사는 존속하며, 상법 제527조의 5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결의에 따른 압도주수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 공고 제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사에 의전서 또는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지기 바라며, 또한 당사의 주주는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1. 압도대상 건설업의 종류(분할할 건설업의 종류)
토목공사사업(등록번호 : 05-0273)
설비건축공사사업(등록번호 : 광주구 98-01-03)
도상·상하수·배수·관공·공사(등록번호 : 광주광안-23-라-01)

2. 압도제정일(분할제정일) : 2025년 12월 09일

3. 제판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기한 : 2025년 1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장소 : 광주광역시 광안구 북문대로 319, 301호, 302호(신창동)
주식회사 대영건설 본사

4. 압도인 및 압수인의 주권 영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영도자" 상 호 : 주식회사 대영건설
대표이사 : 박세환
소 제 지 : 광주광역시 광안구 북문대로 319, 301호, 302호(신창동)
사업자번호 : 327-88-00733
전화 번 호 : 062-959-2071
"영수자" 상 호 : (가)종 주식회사 대영
대표이사 : 박세환
소 제 지 : 광주광역시 광안구 북문대로 319, 202호 (신창동)
전화번호 : 062-959-2500

2025년 11월 7일
주식회사 대영건설
광주광역시 광안구 북문대로 319, 301호, 302호(신창동)
대표이사 박 세 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문철(711004-1XXXXXX)
• 최후주조 : 목포시 산정원목길5번길 3(산정동)

피상속인 망 박문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5년단282호로 신청하여 2025년 10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1월 7일

- 상속인 : 박남원(720825-2XXXXXX)
목포시 용당로 73, 101동 909호 (산정동, 삼학타운)
- 신고기간 : 2025. 11. 7. ~ 2026. 1. 1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남원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황우미(670630-2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동구 필문대로171번길 27-10 (산수동)

피상속인 망 황우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4628호로 신청하여 2025년 11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1월 7일

- 상속인 : 전연우(990108-2XXXXXX)
광주 동구 밤실로 100, 105동 803호 (산수동, 광신프로그레스)
- 신고기간 : 2025. 11. 7. ~ 2026. 1. 1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전연우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10-2785-0073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령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출 공고)

주식회사 남부발전(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형설전기(이하 "을"이라 함)는 2025년 11월 06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5년 11월 7일

"갑" 주식회사 남부발전
(법인등록번호 : 135811-047199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에이동 1817호(하·동, 광교 효성해링턴 타워)
대표이사 조 상 욱

"을" 주식회사 형설전기
(법인등록번호 : 200111-023730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곡리로 30-8
대표이사 윤 중 현